

현대 태권도의 원류, 무덕관의 개설 시기에 관한 연구

김영선(연세대학교 겸직교수) · 여인성*(연세대학교 교수)

요 약

현대 태권도의 원류인 5대관(五大館) 중 무덕관은 강성한 관세를 이루었던 주요한 유파였다. 창설자 황기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철도국 직장 내에서 무덕관을 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무덕관이 개시된 시기는 지금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주제는 현대 태권도의 기원에 관한 주요한 지식의 일부이므로 보다 엄밀한 학술적 연구로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덕관의 개설 시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올바른 태권도사 지식을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역사 연구법과 면접법이 병행되었다. 연구 절차는 다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주제와 관련된 사진, 증서 등 2점의 1차 사료가 수집되었다. 둘째는 면접법을 통해 사료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담고 있는 단체사진 1점에 대해 3명의 관련자를 만나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는 확보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선행 기록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덕관의 개설 시기는 1947년 초로 확인되었다. 바로 이 시점이 당수도 무덕관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자 창립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 태권도계에서 무덕관의 개설 시기에 관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이 명백히 기록됨으로써 보편타당한 태권도사 지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주제어: 현대 태권도사, 5대관, 무덕관, 황기, 당수도, 화수도, 수박도

* isyeo@yonsei.ac.kr

I. 서론

현대 태권도의 원류는 광복 이후 5대관(五大館) 즉 당수도 청도관, 조선연무관 권법부, 당수도 무덕관, YMCA 권법부(拳法部), 당수도 송무관(松武館)에 의해 성립되었다(Ahn, 2000). 그런데 이 5대관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5대관 중 무덕관의 출발 시점이 그러하다.

무덕관은 광복 이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철도국에서 창설자 황기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무덕관이 정확히 언제 출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예로서 현대 태권도사를 상세히 정리한 국기원 지도자 교육용 교재(2017)조차 무덕관의 성립 시기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즉 다른 관들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이 명기된 반면 무덕관의 형성 시기는 생략됨으로써 그 불확실성을 방증한다.

무덕관의 개설 시기에 대한 모호성은 갖가지 상충한 견해들로부터 기인한다. 그러한 이견(異見)들은 창설자인 황기를 비롯한 무덕관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관 인사들의 반론으로 대별된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근거를 살펴본다.

당사자인 황기(Hwang, 1958, 1970, 1993, 2003)는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무덕관의 창립 시기를 1945년 11월 9일로 명기하였다. 즉 무덕관은 우리나라 광복 직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호응하여 그의 제자이자 무덕관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서상렬(Seo, 2012)은 황기의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반면 황기의 주장에 대한 반론들은 다른 관 인사들에 의해 진작부터 제기되었다.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초기 관원이었던 이종우와 이교윤은 무덕관이 1946년 이후에 개관되었다는 것이다(Lee, 2007; Kang, 2001; Seo, 2016). 또한 태권도 역사가인 강원식과 이경명(Kang & Lee, 2002)은 “무덕관의 창설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47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라고 서술하였다. 아울러 전 국제태권도 연맹 총재였던 최홍희(Choi, 1997)는 그의 자서전에서 5대관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무덕관은 1950년 가을 서울역 구내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무덕관 시작 시기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과 여러 반론들이 지금까지 지속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덕관의 개설 시기를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무하다. 한편 태권도사를 상세히 다룬 지도자 교육용 교재는 물론 안용규(Ahn, 2000), 이경명(Lee, 2002), 최점현(Choi, 2008), 허인옥(Heo, 2008), 정경원(Jung,

2012), 송일훈, 김종길(Song & Kim, 2018) 등 여러 태권도사 서적이나 학술 논문들도 황기의 주장을 애매하게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더욱이 무주에 위치한 국립 태권도박물관 전시관은 1945년 11월 창립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태권도사의 시초에 관해 태권도 기관이 표방하는 공공 정보마저 불명확하거나 오류로 기록되는 것은 결코 간과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태권도의 기원을 다루는 주요한 지식일 뿐 아니라 태권도의 역사적 정체성과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유용한 사료 확보와 엄밀한 고증(考證)을 채용하는 역사학 연구로 해결되어야 한다. 편파적 입장에 얽매인 과장된 주장이나 오류를 배제하고 보편타당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이기도 하다(Arnold, 2000).

이 논문은 무덕관이 개설된 정확한 시기를 규명함으로써 현대 태권도의 원류로서 무덕관의 출발 시점과 실상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이 연구 결과는 각종 태권도사 교재와 홍보 자료에 현대 태권도사의 시초를 명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무덕관의 형성과 전개가 현대 태권도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실증주의에 기반한 역사 연구법(historical research)과 면접법(interview method)이 채택되었다. 역사 연구법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기록, 사진 등 사료적 근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분석하는 기법을 동원한다. 특히 사진이나 신문 기사는 객관적 진실(fact)을 전하는 유용한 단서이다(Martha & Walter, 2001). 이 논문의 주제와 연관해서 2점의 사진과 증서 등 1차 사료와 관련 기록과 정보 자료들이 수집되어 사실 분석에 활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관련 자료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면접법이 수행되었다. 면접 대상자는 무덕관 개설과 관련된 최희석, 엄운규, 서상렬 3명이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희석은 무덕관 개설 당시 입관한 수련생이었기에 그 실상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엄운규는 당시 청도관 관원이었지만 무덕관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무덕관 관원들과 합동심사 후 단체사진을 함께 찍은 당사자였다. 서상렬은 한국전쟁 후 입관한 수련생이었지만 자신의 서적을 통해 무덕관의 개설 상황을 상세히 서술했기 때문이었다. 면접 시기는 2013년 1월과 4월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무덕관 개설에 관련 있는 1차 및 2차 사료 제공과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연구 절차는 다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주제에 대해 상충되는 선행 논지가 조사되고 정리되었다. 둘째는 주제와 직결된 사진 1점이 수집됨으로써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었다. 아울러 증서 1점과 관련 단서들이 추가되어 사실 검토가 이루어졌다. 셋째는 확보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선행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였다.

II. 무덕관의 개설 시기에 관한 논쟁

1. 상충되는 무덕관 창립설

무덕관의 창설자 황기와 무덕관 사무총장을 역임한 서상렬 등 출신 인사는 무덕관이 1945년 11월 9일에 시작되었다고 여러 서적에서 기록하였다. 반면 다른 관 출신자들은 1946년 또는 1947년 이후에 무덕관이 성립되었다고 반박하였다.

1945년 11월 9일 무덕관이 창립되었다는 설은 창설자 황기가 펴낸 ‘당수도 교본(Hwang, 1958)’에서 최초로 개진되었다. 뒤이어 출판된 수박도 대감(Hwang, 1970)과 무덕관(Hwang, 1993), 무도 철학(Hwang, 2003) 등에서 이 날짜가 그대로 표기되었다. 황기의 제자이자 무덕관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서상렬(Seo, 2012)은 무덕관 역사를 정리한 단행본 ‘무덕관은 통합하여야 한다’에서 황기의 논지를 계승하였다. 1945년 11월 창립설은 무덕관을 개설했던 당사자와 계승자가 천명했다는 점에서 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은 신뢰도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광복된 지 이듬해인 1946년 3월에 개설된 조선연무관 권법부 수련생이었던 이종우는 무덕관의 1945년 개시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무덕관은 조선연무관 권법부나 청도관보다 분명히 먼저 창설되지는 않았다. 1946년 이후에 창설됐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Kang, 2001). 당시 조선연무관 수련생이었던 이교윤(Lee, 2007)과 태권도 역사가인 강원식과 이경명(Kang & Lee, 2002)도 이같은 반론에 동의하는 견해를 보였다.

이렇게 상충되는 원인에 대해 창설자 황기가 자신의 활동상을 정리한 ‘무덕관(1993)’ 서적에 그 상세한 연유가 적혀 있다.

2. 황기의 무예반 개설 과정

황기가 저술한 여러 서적 중에 ‘무덕관(Hwang, 1993)’에는 무덕관의 개설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한국이 독립을 맞았고 ... 당시 본인은 교통부에 화수도(당수도)부를 설치하고 아울러 무덕관을 창설한 것이다. ... 처음에는 3명의 수련생인 오원영, 함해성, 이상초 등과 시작하였으나 2개월도 못 가서 흐지부지되었다. 그 후 다시 5명의 젊은 수련생을 데리고 또 시작했으나 3개월도 못 가서 중단하게 되었다. 홍성균, 신재영, 윤재철, 김옥, 김동한이었는데 이때의 수련은 중국식 세법과 보법까지 수련하다가 중단되었다(Hwang, 1993).

황기 자신이 직접 작성한 앞 인용문은 무예반의 초기 상황을 상세히 전해주는데 그 의미는 다음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황기는 교통부에서 무예 지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중국식 세법(자세와 동작) 및 보법(서기와 이동) 등 중국무술이었다. 황기 자신이 어떻게 중국무술을 익혔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이 나오지 않아 잘 알 수 없다. 단지 서적의 부록에 실린 연표에서 ‘1935년 남만주 철도회사 취직’과 ‘1936년 만주에서 국술 수련 입문. 양국진 선생’이란 문구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둘째, 무술 명칭은 화수도(당수도)로 표방되었다. 그는 중국무술을 가르치면서도 독자적인 한국식 무예를 지향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중국무술 지도를 시작했던 시기는 본문에서는 광복 이후라고만 나왔다. 부록의 연보 기록에서는 ‘1945년 11월 9일 무덕관 창설 및 관장 취임(서울). 교통부 당수도부 창설. 부장 취임’이 표기됨으로써 광복 직후 2-3개월 사이에 개시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넷째, 시작 초기 무예 교습 상황은 원활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3명, 뒤이어 5명 등 수련생들은 몇 달도 되지 않아 수련을 중단함으로써 중국무술 수련 활동이 지속되지 못했다.

이 같은 지도 실상은 황기 스스로에게 두 가지 사항을 느끼게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무술이 흥미도가 떨어져서 수련생들이 무예 수련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직장 내 무예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마땅한 대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황기의 후속적인 행적이 다음과 같이 본문에 적혀 있다.

이렇게 부진한 상태에서 서울 소공동에서 (조선)연무관 권법(당수)부를 창설한 전상섭 씨를 알게 되었다. 또 그 당시 청도관의 관원이며 교통부(운수부) 도서관에 근무하였던

현종명 씨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현종명)의 소개로 청도관 창설자인 이원국 씨를 알게 되었다. ... 나는 이 두 사람을 알게 되어 대단히 기뻐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존경과 예의와 봉사로서 성심껏 접촉하였다. 또한 그들은 나보다 발전하고 있었다. ... 본의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당수도’라고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때가 서기 1947년**이었다(Hwang, 1993).

황기의 이 증언은 당시 자기의 무예 지도 행적에 대한 여러 가지 실상을 전해준다. 그는 조선연무관 권법부(초기에는 당수부라고 불렀음) 사범 전상섭과 당수도 청도관의 이원국 관장과 수련생 현종명 등을 알게 되면서 당수도가 자신의 중국무술보다 더 유망(有望)한 무예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황기는 당수도를 도입하기 위해 그들과 성심성의껏 교류하였고 마침내 1947년에 이르러 철도국 직장 내에서 당수도부를 개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47년 당시 철도국 내에서 당수도부를 열었던 상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명칭을 오키나와식으로 바꾸고 (철도)도서관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쓴 서적을 많이 보고 연구하며 습득한 것을 토대로 오키나와(일본)식 무술을 수련, 보급시키게 된 것이다. 그 후 세 번째 수련생 6명을 모아서 수련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인간성도 좋아서 오랫동안 수련을 계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식을 잘 시키고 보급시켜서 수련생이 점차 늘어났다. 수련생은 무덕관 단번(段番) 1번인 김은창, 2번 김용덕, 3번 유화영, 4번 남삼현이고 그 외 2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중에 중단해야 했다. 무덕관은 이러한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 많은 발전을 하였다(Hwang, 1993).

이 인용문은 황기가 당수도부를 개설했던 과정과 수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는 당수도 서적을 탐독하며 기술을 비롯한 무예 체계를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수도부가 개설된 이후 수련을 시작한 6명 중 4명의 명단도 열거되었다. 이와 같이 철도국 당수도부는 1947년에 시작되어 수련생 6명이 확보되었고 점차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무덕관의 개설 시기에 관한 새로운 쟁점

1. 1947년 5월에 거행된 무덕관과 청도관의 합동 심사

그런데 황기가 당수도를 도입하여 무덕관이 개시된 시기는 1947년 중 정확히 언제일까? 사진과 증서 등 2건의 실증 사료와 증언에 근거하여 당수도 무덕관은 1947년 초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시기부터 사범 황기는 수련생을 양성하였고 김은창, 김용덕, 최희석 등 초기 수련생을 배출하면서 철도국 당수도부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다음 〈Figure 1〉은 1947년에 5월에 거행된 청도관의 3회 심사를 기념한 장면이다. 사진 설명에서 한자로 ‘당수도 청도관 제 3회 심사 기념. 4280(1947). 05. 11.’로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심사가 바로 청도관과 무덕관의 합동 심사였고 철도국 당수도부가 개시된 시기가 판명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Figure 1. The joint promotion test of Moo Duk Kwan (the 1st event) and Chungdo-kwan (the 3rd event) on May 11th, 1947 (Jung, S. C., 2010)

최희석, 엄운규 2명의 면담자는 이 사진 속에 등장한 당사자였다. 면담자의 증언을 통해 행사 제목이나 날짜 기록이 정확했을 뿐 아니라 사진에 나온 여러 인물의 이름도 상세히 파악되었다. 심사 장소는 당시 청도관의 수련장인 종로구 시천 교당이었다. 앞줄 중앙에 의자에 앉아 있는 인사는 개성 송무관의 노병직 관장, 청도관 이원국 관장, 무덕관 황기 관장이었다. 그리고 청도관 수련생이었던 엄운규, 현종명, 이용우, 남태희, 고재천, 손덕성, 강서중, 민운식 등이 자리했다(Uhm, 2013). 무덕관 수련생으로는 김은창, 김용덕, 최희석 등이었고 사진의 왼쪽 앞줄에 위치했다(Choi, 2013).

이 사진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이 명확히 파악되었다. 첫째, 무덕관의 1회 심사는 1947년 5월 11일, 청도관 제 3회 심사와 합동으로 시행되었다. 둘째, 황기 사범은 5명의 수련생을 인솔하여 청도관 관원들과 합동으로 첫 회 심사를 치렀다. 이 같은 합동 심사에 관한 사실은 5대관 창설 경위를 심도(深度)있게 취재한 이호성(Lee, 2007)의 다음 기록과도 일치했다. “무덕관이 창설된 처음에는 청도관과 함께 심사를 보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2. 심사에 관한 기록과 자료

무덕관이 개설된 후 1947년 5월, 청도관과 합동으로 첫 심사가 거행되었던 사실은 최희석의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되었다.

첫 심사는 황기, 이원국 씨가 앞에 앉아 심사를 봐주었는데, 김은창, 김용덕, 유화영, 나 그리고 남삼현이 왼쪽(에 앉았다.). 또 (청도관의) 엄운규, 현종명, 손덕성, 남태희가 오른쪽 줄에 있었다(Choi, 2003).

최희석은 무덕관의 첫 심사에서 청도관 수련생과 심사에 임했던 상황을 기술했다. 앞의 〈Figure 1〉에서 확인되듯이 최희석은 초기 수련생이었다. 또한 그는 황기의 교본인 수박도 대감(1970)에서 나왔듯이 무덕관 사범까지 역임했던 경력에 비추어 그의 증언은 신뢰도가 높다. 그가 언급한 심사 수련생들은 〈Figure 1〉에서 모두 등장했다. 아울러 다음 〈Figure 2〉는 최희석이 1947년에 무덕관 당수도 수련을 시작했고 세 번째로 승단했다는 기록으로서 유튜브에 올라 있다. 〈Figure 3〉은 이 주제와 관련된 주요 1차 사료인 최희석의 2급 급증이다. 무덕관 3회 심사 일자가 1948년 4월이었음을 볼 때 당시 6개월마다 거행된 심사 일정상 첫 심사가 1947년 5월에 행해졌다는 앞의 〈Figure 1〉에서 밝혀진 사실과 일치하였다.



Figure 2. A captured image that records the beginning of grandmaster Choi Hee Suk's training in Mud Duk Kwan and the number of his black belt certificate (Cook,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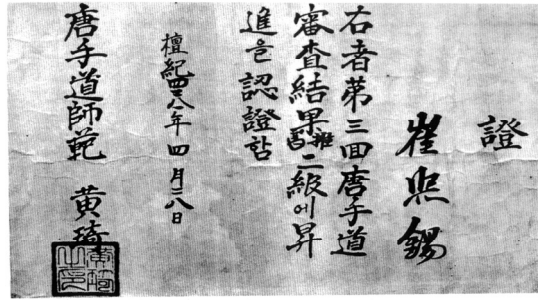


Figure 3. grandmaster Choi Hee Suk's 2nd geup (grade) certificate issued for the 3rd promotion test of Moo Duk Kwan, which was held in April, 1948 (Chungbuk branch of Korea Soobahk-do Association, 2008)

그러면 철도국 당수도부는 정확히 언제 개설되었을까. 이 답안은 최희석(Choi, 2003)과 서상렬(Seo, 2012)이 기록했듯이 당시 6개월마다 봄과 가을에 거행되었다는 당시 심사 일정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1947년 5월 11일에 무덕관의 첫 심사가 거행되었는데 그때보다 6개월 이전에 당수도 교습이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1946년이 아닌 1947년에 철도국 당수도 수련이 시작되었다는 황기의 기록(Hwang, 1993)과 1기 수련생 최희석의 (Figure 2)는 수련 시작 연도를 명확히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1947년 초, 그 해가 열리면서 당수도 수련이 시작되었고 5월 11일에 첫 심사가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론은 황기와 최희석을 비롯한 여러 기록과 2건의 사진과 증서가 종합적으로 검토됨으로써 도출되었다.

3. 무덕관의 개설 시기에 관한 인식과 판단

앞 단락에 고찰된 철도국 당수도부의 개설 시기와 수련생 명단 등 구체적 사항들은 무덕관 출범에 관한 주요한 정보이다. 철도국 당수도부가 1947년 초에 개설되어 첫 심사는 그해 5월 철도관과 함께 거행되었다. 그러면 무덕관은 1947년 초에 개설되었다는 것이 정설이 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입장과 제삼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상충되는 문제가 깔려 있다. 즉 무덕관 개설 시기는 중국무술과 당수도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앞당겨 지기도 하고 아니면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

철도국 무예반은 개설된 무예의 특성과 수련 상황에 따라 다음 두 가지의 쟁점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중국무술을 기반으로 시작한 무예 교습은 1945년 11월 9일이다. 둘째는 당수도를 도입한 무예반이 1947년 초에 이르러 개시되었다. 그런데 이 두 시점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무덕관 창립 시기가 달라진다. 즉 무덕관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개시일이 하루라도 앞당겨 지정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다른 관보다 앞서 창립되었다는 역사성을 내세울 수 있고 또 관장의 지도 경력과 소속 관원들의 무예 경력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무덕관과 관련이 없는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면 2번째 시점인 1947년 초가 무덕관이 정식으로 개시된 시기가 될 것이다.

이 사안이 공식적인 태권도사의 한 부분으로 거론될 경우에는 의당 두 번째 시점이 채용되어야 한다. 어떤 분야이든지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 객관적 판단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학술적으로 타당하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이 같은 학술적 원칙에 따라 당수도 무덕관의 창립 시점이 1947년 초이어야 하는 세부적 이유를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45년 무예 강습은 중국무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즉 황기가 초창기 강습한 중국무술은 당수도와는 다른 무예이었으므로 분별되어야 한다. 둘째, 1945년 수련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중국무술 강습은 몇 달도 안 되어 중단되었고 그 수련생들도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무술 수련생은 1차 3명, 2차 5명이었지만 중도에 그만둠으로써 강습의 명맥이 끊어졌다. 따라서 이후 1947년 초에 이르러 당수도로 바꾸어 새로운 관원들을 대상으로 새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1945년 11월 9일'이란 시기와 날짜에도 의문이 따른다. 1945년 11월은 우리나라가 광복된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어수선한 사회적 시기였기에 여가활동인 무예를 여유롭게 수련할만한 직장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1월 9일 날짜는 공교롭게도 황기의 생일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무덕관 창립 일자가 창설자의 생일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지정되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 넷째, 황기의 첫 번째 저서인 '화수도 교본(Hwang, 1949)'에서는 1945년 개시일이 전연 명기되지 않았다. '화수도 교본'은 '당수도 교본'보다 9년이나 앞서 발간되었는데도 무덕관 연혁 정보가 생략되었다. 즉 오랜 헛수가 지난 후인 1958년에 이르러 무덕관의 창립 일자가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무덕관 개설 시기에 관해 연구자가 서상렬 전 무덕관 사무총장과 면담한 내용도 참조된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에 무덕관에 입관한 관원이었지만 2012년 무덕관 역사를 정리한 서적을 발간했다. 그와의 면접에서 연구자는 "사진 등 여러 사료적 근거로 무덕관은 1947년에

와서 시작되었고 그 이전 중국무술 강습 사실은 불명확하므로 무덕관의 역사로는 간주되기가 어렵다.”라는 논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당시 광복 직후라 황기 관장이 몇몇 철도청 직원들에게 중국무술을 강습한 사례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1947년 이전의 무덕관 역사는 우리나라의 상고사(上古史)로 비유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역사적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듯이 무덕관도 당수도 이전의 역사는 상고사로 간주될 수 있다(Seo, 2013).” 그의 이 같은 역사 인식은 황기 관장을 신뢰하고 무덕관을 계승하는 인사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무덕관의 역사가 태권도 현대사의 출발점이기도 한 중요한 지식의 일부가 되는바, 그에 대한 합당한 역사적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1945년 창립설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덕관은 1947년 초에 당수도를 기반으로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는 무덕관 이전에 활동을 개시한 조선연무관의 수련생이었던 이종우(Kang, 2001)와 이교윤(Lee, 2007)의 기록과도 정확히 합치되었다.

IV. 결 론

현대 태권도의 원류인 당수도 무덕관은 황기에 의해 1947년 초에 개설되어 그해 5월 11일 청도관 도장을 방문하여 첫 심사를 거행했다. 바로 이 시점이 무덕관의 공식적인 개시일자 창립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 심사 사진과 증서 등 2건의 1차 사료와 여러 기록 자료들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간 창설자 황기와 무덕관 인사들이 표명했던 무덕관의 발생 시기는 이전의 중국무술 지도까지 포함한 시기인 1945년 11월 5일이었다. 이는 무덕관의 창건사(創建史)가 1년 이상 앞당겨지는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현대 태권도의 또 다른 원류인 송무관(Kim, 2019)과 청도관(Kim & Yeo, 2019)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관(館)의 창건사에 비공식적이고 일시적인 이전의 교습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각 관의 입장이 개입된 역사 서술 방침이다. 그러나 국기원과 같은 공인 기관이 다루는 태권도사 지식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사실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힌 주장은 엄밀하고 학술적인 사료 비판에 의해 공식 태권도

사의 범주에는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다. 아울러 무덕관의 형성과 변천이 현대 태권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상세한 내력과 사적(史的) 의의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ferences

- Ahn, Y. K. (2000). *History, Spirit and Philosophy of Taekwondo*.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21st Century Education Inc.
- Arnold, J. H. (2000). *Hist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 Interscience Publ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H. H. (1997). *Taekwondo and I (1)*.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Saram-Daum Inc.
- Choi, H. S. (2003. July 12). Dangsoo-do, The Name of a Martial art that I first trained in, The person whom the Journal met - GM Choi Hee-seok, *Asia-Pacific Martial Art Journal*, 3(3), 1-2.
- Choi H. S.'s testimony (2013. April 3). an Early Student of Moo Duk Kwan School.
- Choi, J. H. (2008). *5 Thousand Years of Taekwondo History in Korea*.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Sang-A Inc.
- Choongbuk Branch of the Korea Soobahk-do Association (2008). *Soobahk-do; The Martial Art for Living*. Textbook of Instructor Program, Unpublished paper.
- Cook, L. (2012, May 12). *Grandmaster Hee-Suk Choi: Legends of the Martial Arts Hall of Fame 2012*, Retrieved 2019, Nov. 11th,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wZHWis5KBM0&t=155s>
- Heo, I. W. (2008). *The History of Taekwondo's Formation which is examined around the Kwan (martial art style)*. - Interscience Publication, Paju: Korean Academic Information Inc.
- Hwang, K. (1949). *Textbook of Hwasoo-do*.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Chosun Culture Education Inc.
- Hwang, K. (1958). *Textbook of Dangsoo-do*.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Keiryangmunhwasa Inc.
- Hwang, K. (1970). *Textbook of Soobahk-do*.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Samkwang Inc.

- Hwang, K. (1993). *Moo Duk Kwan*.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Seyeon Inc.
- Hwang, K. (2003). *Philosophy of Martial Art*.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Segiwonsaek Inc.
- Jung, K. W. (2012). *A Study on the Creation and Training of Taekwondo School after 1945*.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Jung, S. C. (2010. Feb. 26). *Uhm Un-Kyu, the Former Head of the Kukkiwon and Taekwondo History*. Taekwondo Times, Retrieved 2010 February. 26, from <http://www.timestkd.com/news/articleView.html?idxno=18>
- Kang, K. S. (2001). *Half a century in Taekwondo: Tale of Korean Sports History*. - Interscience Publication, the Korean Sport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Seoul: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 Kang, W. S., & Lee, K. M. (2002). *History of Our Taekwondo*.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Sang-A Inc.
- Kukkiwon (2017). *Textbook of The 3rd Taekwondo Masters Course*. - Interscience Publication, World Taekwondo Academy.
- Kim, Y. S.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ongmoo-gwan as the Foundation of Modern Taekwondo.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10(1), 1-18.
- Kim, Y. S., & Yeo, I. S.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hungdo-kwan as the Foundation of Modern Taekwondo.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10(2), 21-41.
- Lee, H. S. (2007). *Korean martial arts conquer American continent*. - Interscience Publication, Paju; Korean Academic Information Inc.
- Lee, K. M. (2002). *Yesterday and Today of Taekwondo*.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Eomungak Inc.
- Lee, K. Y. (2007). *Global Taekwondo*.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Joeun Inc.
- Martha H., & Walter P. (2001). *From Reliable Sources;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Methods*. - Interscience Publication,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eo, S. W. (2016). *Understanding Taekwondo History and Culture*.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Anybig Inc.
- Seo, S. Y. (2012). *Moo Duk Kwan shall be integrated*.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Oriental Business Form.
- Seo, S. Y.'s testimony (2013. April 8). the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Moo Duk Kwan School.
- Song, I. H., & Kim, J. K. (2018). A Study on Origin Taekwondo of Moodukkwon (1).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16(3), 129-140.
- Uhm, U. K.'s testimony (2013. January 29). an Early Member of the Chungdo-kwan School.

A Study on the Inception of Moo Duk Kwan as the Foundation of Modern Taekwondo

Kim, Young-Sun (Yonsei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

Yeo, In-Sung (Yonsei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Among the five major martial art schools that are the foundation of modern taekwondo, Moo Duk Kwan is a major school that has proliferated most widely. It is well known that the founder, Hwang Kee, opened the Moo Duk Kwan martial art school in the office of the railroad station located in Yongsan, Seoul. However, it has not been clear until now when Moo Duk Kwan was established. This topic is a key part of understanding the origins of modern taekwondo, and it should be clarified with more rigorous academic research. Therefore, this paper aimed at generating a reasonable account of an important point in taekwondo history clearly by establishing the inception of Moo Duk Kwan. The research methodology combines the positivism-based historical research method and the interview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three stages. First, 2 primary sources were collected, including a photo and a certificate related to the topic. Second, the sources were validated and contextualized through the interview method. In particular, the researcher was able to meet with 3 people involved in the founding of Moo Duk Kwan, to get detailed and verifiable information on the picture that contains objective facts of the time. Third, the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were analyzed and corroborated with the existing prior records. This study confirms that Moo Duk Kwan officially began in early 1947. This very point in time may be regarded as the official starting point and the founding date of Tang Soo Do (Okinawan Karate) Moo Duk Kwan. The inception of Moo Duk Kwan presented in this paper should be accepted as historical fact, thus contributing to the foundational knowledge of taekwondo history.

Keywords: Modern Taekwondo History, 5 dae-kwan (the five major martial art schools), Moo Duk Kwan, Hwang Kee, Tang Soo Do, Hwa Soo Do, Soo Bahk Do

논문투고일: 2020. 05. 03.

논문심사일: 2020. 06. 14.

심사완료일: 2020. 06. 22.